

프로야구, 오늘부터 후반기

# '2위' · '5위' 싸움 본격화

### SK 64승1무31패 독주 서울 3팀 2위 자리 치열 6위 KT위즈 5강戰 참여

올스타 브레이크로 숨을 고른 KBO리그가 26일부터 후반기의 막을 올린다.

가을야구를 향한 치열한 싸움도 다시 시작된다. 선두 다툼은 일찌감치 SK 와이번스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SK는 전반기에만 64승1무31패를 올려 독주 체제를 갖췄다. 시선은 다른 곳으로 쏠린다. 최대 격전지는 서울 3팀이 다투는 2위와 '돌풍'의 KT 위즈가 참전한 5위 자리다.

### ◇키움 · 두산 · LG, 2위 레이스 누가 웃을까

2위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건 키움 히어로즈다. 키움은 59승39패를 거둬 전반기를 2위로 마쳤다. 1위 SK와는 6.5경기 차가 난다.

키움은 안정된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팀 타율 1위(0.283), 팀 홈런 4위(76개), 팀 평균자책점 4위(3.80)에 오르는 등 마운드와 타선이 모두 제 몫을 해주고 있다. 안우진과 이승호 등 선발진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은 없었다는 점에서 키움의 '힘'을 엿볼 수 있다.

후반기 전망도 긍정적이다. 전반기 막판 조상우가 어깨 부상을 털고 돌아오면서 불펜은 단단해졌다. 키움은 구원진 평균자책점 3위(3.46)를 기록 중이다. 안우진과 이승호도 후반기와 함께 돌아올 예정이다. 시즌 초반부터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신경써왔다는 점도 막판 순위 싸움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두산은 키움에 1.5경기 차 뒤진 3위에 올라있다.

6월초까지만 해도 SK와 1위 다툼을 하던 두산은 전반기 막판 밀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두산이 올 시즌 어려움을 겪는 데는 잠잠한 타선의 영향이 크다. 두산은 올 시즌 팀 타율 5위(0.269), 팀 홈런 공동 7위(58개)에 그친다. 지난해 팀 타율 1위(0.309), 팀 홈런 4위(191개)에 올랐던 것과 차이가 있다.

순위 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는 7월 이후 팀 타율은 0.248(7위)로 더



떨어졌다. 올 시즌 팀 평균자책점 2위(3.49)의 마운드가 버티고는 있지만, 타선이 터지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두산은 올스타 휴식기 동안 강석천 퓨처스 감독에게 1군 수석 코치를 맡기는 등 코칭 스태프 보직 변경으로 분위기 쇄신을 노리고 있다.

4위 LG 트윈스는 호시탐탐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3위 두산과는 3.5경기 차, 2위 키움과는 5경기 차가 난다.

지난해의 아픈 기억은 올해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LG는 지난 시즌 전반기를 4위로 마감하고도 후반기 하락세를 타며 8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체 외국인 타자 카를로스 페게로를 영입하는 등 전력도 재점검을 했다.

### ◇NC · KT, 5강 마지막 열차는

가을야구의 마지막 티켓이 걸려 있는 5위 싸움도 벌써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5위 레이스가 더 흥미로워진 건 6위 KT 덕분이다. KT는 5위 NC 대비 1.5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

뉴스스

## 류현진, 내일 한 · 미 통산 150승 도전 나선다

### 워싱턴전 원정 경기 선발 등판 예고...시즌 12승 사냥



LA 다저스 류현진(32)이 워싱턴 내셔널스 상대로 시즌 12승 사냥에 나선다.

다저스는 25일(한국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류현진이 27일 오전 8시5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리는 워싱턴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지난 20일 마이애미 말린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 역투로 시즌

11승을 수확한 류현진은 6일을 쉬고 마운드에 오른다.

시즌 12승 도전이자 한 · 미 통산 150승 고지를 노리고 있다.

류현진은 2006년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 무대에 데뷔, 첫 해부터 18승(6패)을 올렸다.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2012년까지 통산 98승(52패 1세이브)을 쟁했다.

2013년부터 메이저리그로 무대를

옮긴 류현진은 빅리그 통산 51승(30패)을 기록 중이다. 올해 11승2패 평균자책점 1.76으로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2위, 평균자책점 전체 1위 등 최고의 시즌을 치러가고 있는 그는 1승만 추가하면 전인미답의 한 · 미 통산 150승을 이루게 된다.

'코리아특급' 박찬호는 한 · 미 통산 129승을 쌓았다.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최다승인 124승을 거두고, 2012년 KBO리그에서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5승을 추가했다.

류현진의 올 시즌 워싱턴전 등판은 두 번째다. 지난 5월13일 홈 구장인 다저스타디움에서 워싱턴을 상대로 8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친 바 있다. 통산 성적도 준수하다. 올해를 포함 4경기에 나서 2승1패 평균자책점 1.35를 수확했다.

한편, 사이영상 경쟁자인 맥스 슈어저(워싱턴)과의 선발 맞대결은 불발됐다.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슈어저는 26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복귀전을 갖는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에 따르면 27일 워싱턴에서는 우완 아나발 산체스가 선발로 나선다. 산체스는 올 시즌 18경기 등판, 6승6패 평균자책점 3.80을 기록하고 있다.

### 강정호 교체 출전 했지만

### 찬스마다 침묵...타율 0.181

강정호(32 ·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무안타로 침묵했다.

강정호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해 2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시즌 타율은 0.184에서 0.181로 떨어졌다.

경쟁에서 밀려난 강정호는 최근 출전 기회를 꾸준히 얻지 못하고 있다. 23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서 홈런을 쳤지만, 24일 경정했다. 이날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벤치를 지키던 강정호는 팀이 4-13으로 끌려가던 6회초 수비 때 1루수 조시 벨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강정호가 3루수로 투입되고, 3루수로 선발 출전한 콜린 모란이 1루수로 자리를 옮겼다.

7회말에는 첫 타석에 섰다. 무사 2, 3루 찬스를 맞은 강정호는 상대 구원 투수 마이크 마이어스의 4구째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쳤지만, 1루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7-14로 뒤진 9회 무사 2루에서도 세인트루이스 존 브래비아의 조구 슬라이더를 공략했지만 투수 땅볼로 잡혔다.

피츠버그는 8-14로 졌다. 4연패에 빠지며 시즌 46승55패를 기록했다.

뉴스스



## 최강희 감독, 슈틸리케 감독에게 완승

### 최강희의 상하이 선화, FA컵 8강서 텐진 테다 3:1 제압

전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간 자존심 대결에서 최강희(60) 감독이 올리 슈틸리케(65) 감독에게 완승을 거뒀다.

최 감독이 이끄는 상하이 선화는 24일 중국 텐진의 텐진올림픽센터에서 벌어진 텐진과의 중국 FA컵 8강전에서 3-1로 승리,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 경기는 과거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두 감독의 지략대결로 눈길을 끌었다.

최 감독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대표팀을 이끌었다. 2014 브라질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획득을 발산한 포수 양의지의 복귀 시점도 5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브라질월드컵 이후인 2014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지휘봉을 잡았다.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도중에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다. 상하이 선화는 최근 리그 2경기를 포함해 3연승을 달렸다.

최근 K리그 전북 현대에서 합류해 데뷔전을 시작으로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린 김신욱을 빼고도 승리한 점이 눈에 띈다.

상하이 선화는 2017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FA컵 정상에 도전한다.

최 감독은 "날씨가 매우 뜨겁고, 어려운 환경이었다.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그동안 경기에 뛰지 않은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해 자신감이 커졌다. 팀이 더 좋아질 것이다"고 했다.

뉴스스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갈새미골, 화엄사, 설진강, 운주루, 패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이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